

박찬호, 방망이 다시 잡았다



박찬호



“어떻게든 해야죠.” KIA 타이거즈의 박찬호가 다시 방망이를 들었다. 손가락 부상으로 타석에서 이탈한 박찬호는 1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된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 앞서 타격 훈련을 소화했다.

박찬호는 전날에는 실내 연습장에서 타격을 하면서 손가락 상태를 점검했다.

박찬호는 지난 12일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1루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다가 왼손 네 번째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 병원 검진 결과 인대 손상이 확인되면서 박찬호의 질주가 멈췄다.

박찬호는 지난 8월 22일 경기에서 나와 0.382의 타율과 함께 22득점을 기록하면서 월간 MVP 후보로도 이름을 올렸다.

9월에도 박찬호는 KIA 타격의 선봉장이었다.

9월 0.317의 타율을 기록한 박찬호는 결정적인 순간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올 시즌 0.302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박찬호의 득점권 타율은 0.343에 이른다.

리그 최강의 투수 NC 페디 공략 전면에 서는 등

손가락 부상 후 타격훈련 재개

“느낌 이상하지만 통증 없어

팀 승리 위해 역할 하고싶다”

상대 에이스를 상대로 집중력 있는 타격을 선보였고, 재치있는 주루로 상대 배터리는 물론 내야를 흔들며 팀 9연승 질주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아쉬운 부상으로 토타자 자리를 비우게 됐다.

수비와 주루는 가능했던 만큼 엔트리는 지킨 박찬호는 벤치에서 팀의 연패를 지켜보아야 했다.

부상 후 3경기에서 결정했던 박찬호는 18일 두산전 대수비로 다시 그라운드에 섰다. 이날 깔끔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다시 시동을 건 박찬호는 타석 복귀까지 노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자신의 부상 이후 팀이 연패에 빠진 만큼 박찬호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부상 당시 팀이 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욕이 넘

쳤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한 박찬호는 “팀에 뭐라도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간절함을 이야기했다.

올 시즌 박찬호의 가장 큰 목표는 오랜 시간 뜨겁게 ‘가을 잔치’를 즐기는 것이었다.

박찬호는 지난해 가을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통해 생애 첫 포스트 시즌을 경험했다. KT 위즈를 상대로 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3개의 안타를 기록하고 도루도 기록했지만 단 1경기 만에 팀의 가을이 끝나면서 아쉽게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그만큼 박찬호의 올 시즌 가장 큰 목표는 더 높은 곳에서 뜨거운 팬들의 함성 속에 더 오래 ‘가을 야구’를 하는 것이다.

박찬호는 “내가 빠졌다고 해서 팀이 잘 안되는 것은 아니다. 자꾸 내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벤치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러 “평소 훈련하는 것처럼 똑같이 훈련을 했다. 오히려 더 많이 방망이를 쳤다. 느낌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큰 통증은 없다. 팀의 승리를 위해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단 오늘 출국

테니스·사격·하키 대표팀 등

39개 종목 역대 최대 1140명

금메달 50개 종합 3위 목표

1년 연기 끝에 23일 개막하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20일 결전지인 중국 항저우로 떠난다.

최윤 단장이 이끄는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은 20일 낮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다.

중국 저장성 성도 항저우를 비롯한 6개 도시에서 오는 23일 막을 올려 10월 8일까지 열리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한국은 39개 종목에 역대 최대인 1천140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선수들은 각 종목 경기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중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20일 출국하는 본진에는 권순우(당진시청)를 비롯한 테니스 대표팀 14명, 사격 대표팀 17명, 하키 대표팀 23명, 스케이

이트보드 대표팀 7명이 포함됐다.

최윤 단장과 장재근 국가대표선수총장을 비롯한 본부임원 35명도 이날 함께 떠난다.

한편 19회 항저우 하계 아시안게임에서 45개 나라 선수단이 머무는 선수촌이 역대급 시설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대회 개막을 앞둔 19일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선수촌 투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 메인 미디어센터(MMC)로 사용하는 중국 항저우 엑스포 건물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선수촌은 전 세계에서 온 취재 관계자들이 투숙하는 미디어 빌리지, 각 종목 국제스포츠연맹(IF) 심판 관계자들이 체류하는 테크니컬 오피셜 빌리지와 함께 ‘한 세트’로 구성됐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선수촌 안쪽에 자리 잡은 식당에서 가까운 401동과 402동에 나눠 머문다.

45층으로 구성된 401동 건물의 34층 전체를 사용하며, 17층으로 이뤄진 402동은 대만 선수단과 절반씩 나눠 쓴다.

‘팀 코리아’ 현수막이 펼쳐져 한국 선수단이 머

무는 건물임을 알려주는 401동의 한 층은 5인실 아파트 2개와 4인실 아파트 1개로 이뤄졌다.

보통 방 3개 또는 2개 아파트가 주를 이룬 과거 대회 선수촌과 달리 항저우 아시안게임 방의 크기는 훨씬 넓어 선수 대다수가 쾌적함을 느끼며 지 금껏 출전한 대회 중 숙소만 치면 최고라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드는 선수도 있다고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선수촌 내 와이파이를 통해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등 국내 포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자유롭게 즐긴다고 체육회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최대 50개 이상 획득과 종합 순위 3위를 목표로 내걸었다. 한국은 5년 전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 49개, 은메달 58개, 동메달 70개로 종합 3위에 오른 바 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식까지는 아직 나흘이 남았지만, 경기 일정은 19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출국하는 지소연·이민아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대표팀 지소연과 이민아가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항저우로 출국하기 위해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허을·안영규·김경민 K리그1 30R ‘베스트11’

전남 유지하 K리그2 31R MVP

광주FC의 허을, 안영규, 김경민이 ‘베스트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9일 ‘하나원큐 K리그1 2023’ 30라운드 베스트11을 발표했다. 광주에서는 FC서울전 1-0 승리의 주역인 허을, 안영규, 김경민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는 지난 1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원정경기에서 전반 4분 터진 허을의 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서울이 18개의 슈팅을 몰아치면서 9개의 유효슈팅을 만들었지만, 골키퍼 김경민이 이를 모두 차단하면서 승리를 지켰다. ‘주장’ 안영규도 윌리안의 매서운 슈팅을 머리로는 막는 등 ‘수비의 핵’으로 서울의 공세를 막으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광주는 이날 승리로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4위 서울을 승점 5점 차로 밀어내고 3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MVP는 멀티골을 장식한 포항스틸러스의 제카에게 돌아갔다. 제카는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 왼발과 오른발로 골을 만들면서 팀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베스트 매치는 1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 강원FC의 경기가 선정됐다.

강원은 전반 5분 만에 전북 구스타보에게 페널티 킥 골로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전반 종료 직전 나온 가브리엘과 갈레고의 연속골로 승부를 뒤집은 뒤

후반 30분 기록된 김대원의 골로 3-1 역전승을 거뒀다.

이 승리로 최하위에서 탈출한 강원은 베스트 팀에도 선정됐다.

K리그2에서는 프로 데뷔골에 이어 멀티골을 장식한 전남드래곤즈의 수비수 유지하가 MVP를 차지했다.

유지하는 17일 진행된 경남FC와의 원정경기에서 2골을 넣으면서 팀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유지하는 전반 26분 코너킥 상황에서 발디비아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하면 프로 첫 골을 장식했다. 1-1로 맞선 후반 22분에는 프리킥 상황에서 발디비아가 띄운 공을 받아 오른발로 골대를 갈랐다. 전남은 유지하의 활약으로 3-2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퇴장으로 인한 수적 열세를 딛고 4경기 만에 승리를 신고했다. 유지하와 좋은 호흡을 보이며 2개의 도움을 올린 발디비아는 베스트11에 선정됐다.

K리그2 31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17일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충남아산FC와 FC안양의 경기다. 폭우 속에 전개된 이 경기에서 두 팀은 7골을 주고받는 난타전을 벌였다. 경기는 충남아산의 4-3 승리로 끝났다.

부산아이파크는 베스트팀이 됐다. 부산은 16일 성남FC와의 홈경기에서 라마스, 김찬, 성호영의 연속골로 3-0 승리를 거두면서, 4연승과 함께 K리그2 선두 자리를 지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0월 ‘박세리 월드매치’ 소렌스탐·미셸 위 출전

카리 웹·로라 데이비스도 함께

박지은 등 한국 레전드도 참가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박세리 월드매치에 박세리와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쟁야니(대만) 등 ‘골프 전설’들이 대거 출전한다.

박세리희망재단은 19일 올해 박세리 월드매치에 나오는 국내외 골퍼 선수들과 스포츠 스타들의 명단을 발표했다.

10월 7일 부산 스톤게이트CC에서 열리는 박세리 월드매치에는 주최자 박세리 외에 소렌스탐, 쟁야니, 카리 웹(호주), 로라 데이비스(잉글랜드), 에이미 울컷(미국),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미셸 위(미국) 등 시대를 풍미했던 여자 골퍼 선수들이 나오기로 했다.

또 박지은과 한희원, 김주연, 최나연, 김하늘 등 ‘K-골프 레전드’들도 함께 한다.

이밖에 이형택(테니스), 현정화, 김택수(이상 탁구), 이동국(축구), 김승현(농구), 진종오(사

격), 박태환(수영), 모태범(빙상), 윤석민(야구), 윤성빈(스켈레톤), 신수지(체조) 등 다른 종목의 스타 선수들도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인 1조의 팀 경기로 진행되며 대회를 통해 조성되는 기부금은 우승팀 선수들의 이름으로 스포츠, 문화, 예술 공존의 가치를 위한 기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열기를 높이기 위해 부산시가 공식 후원하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 대회는 JTBC 골프에서 생중계하며 입장권은 티켓링크에서 살 수 있다.

/연합뉴스